경제위기 이후 EU-중남미 투자관계 현황 및 특징

작성자 :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 2013년 2월 26일

■ **EU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긴 기간 동안 중남미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 이후 EU의 대중남미 투자 규모 및 비중은 하락하고, 중남미의 대EU 투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EU의 대 중남미 투자는 위기이후 규모나 비중 면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부문이나 투자형태면에서 다양화를 추구하는 양상을 띰.**

- EUROSTAT과 CEPAL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EU의 FDI중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5년 3.3%에서 2006~2010년 2.8%로 하락하였음.

표 1. 2000 ~ 2010년 EU 주요국들의 대 중남미 FDI 추세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영국	521	2,006	2,525	3,033	6,246	720	7,072	3,226	3,141	1,089	3,810
독일	2,512	-49	-396	-283	2,903	1,873	2,624	2,383	13	646	2,344
프랑스	3,557	5,831	1,223	-1,267	421	2,138	2,632	2,168	5,257	5,353	5,251
이탈리아	1,132	962	418	213	238	3,946	9,174	3,998	2,843	1,477	967
스페인	21,001	9,123	4,884	2,519	11,376	6,870	9,169	18,273	19,945	5,779	2,887
네덜란드	822	2,207	492	1,930	86	1,816	971	1,965	-1,630	1,830	744
총합	38,577	25,143	7,399	5,052	23,690	17,582	17,932	33,484	34,592	17,955	18,147

출처: CEPAL. "La Unión Europea y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versiones para el crecimiento, la inclusión social y la sostenibilidad ambiental." 2013에서 재인용

- EU 다국적 기업들의 중남미 기업인수합병은 서비스 부문에 크게 집중됨(약 66%).
  -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해 왔으나 최근 통신과 에너지 서비스 부문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추세임.
- 제조업 부문 신규 투자 프로젝트들의 경우 EU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비중이 2003-2006년 34%에서 2007-2011년 45%로 증가하였음.

■ **중남미의 대 EU 투자는 2010년 급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갖춘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그러나 규모나 부문 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임.**

- 중남미 국가들의 대EU FDI는 2006~2009년 20억 달러 전후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20억 달러를 상회함.
- 중남미 초국적 기업들(Translatinas)은 여전히 지역 내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있으며, 규모나 부문 면에서 제한적이긴 하나 유럽지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2003~2011년 통계에 따르면 중남미의 대 EU 투자분야는 건설(28%), 화학(16%), 금속(9%), 석유 및 가스(8%), 식음료(7%)임.
  - 특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모회사를 둔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함(유럽 진출 기업 중 90% 이상을 차지).

표 2. 2010년 중남미 초국적 기업들(Translatinas)의 EU 진출 주요 사례

기업명	국적	부문	진출 국가	투자 형태
Petrobras	브라질	석유 및 가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신규투자
PDVSA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영국, 스웨덴	인수 합병
Vale	브라질	광업	프랑스, 노르웨이	신규투자
Grupo JBS	브라질	식품	이탈리아	인수 합병
Votorantim	브라질	그룹(conglomerado)	벨기에, 헝가리, 포르투갈, 영국, 스위스	신규투자 및 인수 합병
Cemex	멕시코	시멘트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체코	신규투자 및 인수 합병

출처: CEPAL. "La Unión Europea y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versiones para el crecimiento, la inclusión social y la sostenibilidad ambiental." 2013에서 재인용

- 한편 중남미 기업들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EU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주 특징으로 꼽을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부진함.

■ △ 중남미 시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밝은 전망 △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수준 향상 △ 경제위기로 인한 유럽기업 가치 하락은 역사적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EU-중남미간 투자 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 최근 10년간 중남미지역 경제성장률은 EU를 앞질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지역의 중산층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중남미 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한 EU 기업들의 서비스업 진출이 활발해짐.
-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는 유럽 기업들의 가치하락과 자본 수요 증가로 인해 Translatinas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